

한우농가 달라져야 산다.



장 성 운
전북한우협동조합장

한우농가들의 걱정은 한미 FTA로 인한 한우가격의 하락 및 사료가격 인상, 부루세라 등 질병문제, 환경규제 등으로 사면초가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만 하고 있으면 아무도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어느 사업이든 노력하지 않는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이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는 없었을 것입니다. 공부만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더 나은 직업을 가지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누구나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기를 바라는 마음 이상으로 한우를 키우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지 생각하여 봅시다.

일본의 화우가 저절로 우수한 육질을 가지게 된 것은 아닙니다. 일본의 농가들은 철저한 기록과 관리를 통한 개량과 개체별 사양관리를 통하여 오늘날과 같은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들보다 더욱 더 우수한 한우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2003년에 미국산 쇠고기가 20여만톤이 수입되어 판매되었지만, 이제는 광우병이라는 무서운 위협을 안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가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의식 있는 소비자들은 미국산 쇠고기를 거부합니다.

우리 한우농가들은 힘을 모아서 한우는 한우로 팔리고, 광우병 위협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는 미국산으로 팔리는 시장을 형성하는데 힘을 모으면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생산이력제 등의 제도가 하루 빨리 도

이제부터라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 우수한 유전능력을 가진 한우를 선발하고, 자질이 불량한 소는 도태하여 내 농장에서는 우수한 능력을 가진 집단으로만 조성하면, 서두에 기술한 사면초가의 상황을 탄탄대로의 상황으로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입될 수 있도록 힘을 뭉쳐야 합니다. 여러분이 키우는 한우는 여러분이 주인이지만 주인이 사료주고 벗짚 주는 것만이 한우사육의 전부가 아니며 개량과 관리를 조잡이나 브랜드 경영체의 지도사에게 맡기는 농가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경영체의 지도사들은 농가의 관리를 도와주는 직업을 가진 직장인들이지만 내가 키우는 한우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발생하면 지도사들을 원망하거나 그들의 잘못으로 책임을 회피합니다. 잘 되면 내 덕이고 못 되면 내 탓이 아니고..., 못되어도 주인인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키우는 한우의 특징이나 성격, 식성, 표현 등을 주인이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한 달에 몇 번씩 방문해서 개체 및 사양관리 해주는 사람들에게 내가 키우는 한우를 맡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의 사업을 남한테 의존해서는 좋은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 우수한 유전능력을 가진 한우를 선발하고, 자질이 불량한 소는 도태하여 내 농장에서는 우수한 능력을 가진 집단으로만 조성하면, 서두에 기술한 사면초가의 상황을 탄탄대로의 상황으로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바이오 연료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하는 원인이기도 하며, 우리나라에서도 사료원료의 거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서 이런 상황에서는 수입 축산물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 우리 한우농가는 농지를 이용하여 총채보리 등의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하면 수입하는 사료원료를 대체할 수 있으며, 정부에서도 동절기의 유희농경지를 이용한 조사료 생산을 위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각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제곡물가격은 급등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에서 생산된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를 이용하여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는 국제곡물가격 상승이 위기가 아니라 경쟁력을 갖춘 기회의 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 조합은 지역적인 여건이 좋은 호남지역의 넓은 평야와 따뜻한 기후조건으로 한우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조사료 문제를 “총채보리”의 대량 생산을 통해 해결하고, 또한 “총채보리의 사료화”를 추진하여 고급육을 생산함으로써 경종농가와 한우농가들의 소득증대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총채보리는 조사료로서의 가치가 높음에다 가격도 저렴해 고급육 생산과 사료비 절감을 위해 매우 적합한 작물이며 “총채보리 사일리지는 양질의 조사료로 TDN함량이 64.5%로 옥수수 사일리지와 비슷하고, 건물소화율, 조단백질 및 조지방 등의 함량도 마찬가지로 옥수수 사일리지와 수입조사료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작물”입니다. 이와 함께 한우 우분을 퇴비로 이용하여 토양의 지력을 향상시켜 자연순환형 농업으로 조사료를 생산하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한우고기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총채보리 사료화는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에서 1998년부터 8년여 동안 연구 개발하여 전북한우협동조합에 기술 이전을 하였으며, 지금까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연구사업 중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의 소득향상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국제곡물가격은 급등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에서 생산된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를 이용하여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는 국제곡물가격 상승이 위기가 아니라 경쟁력을 갖춘 기회의 장이 될 것입니다.

걱정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한우농가들이 뜻과 힘을 모아서 둔갑판매를 차단하고, 기록 관리를 통한 개량으로 우수한 한우를 만들어 내면 수입쇠고기와 싸울 필요없이 차별화된 우수한 품질로 레드오션이 아닌 블루오션의 사업으로 한우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